

# 옛 지명 복제(卜梯)의 어원 연구

조 강 봉\*

## 국문초록

본고는 복제(卜梯)의 어원을 살핀 논의다. 복제원(卜梯院)은 『승람』 전라도 흥양현조에 기록된 지명인데 그 잔형으로 복제교(卜梯橋)가 남아 있으나 지금은 거의 속지명 ‘짐다리’로 불리고 있으며, 현행지도에는 ‘진교’ 또는 ‘진다리’로 적혀있다.

‘진다리’의 한자 표기는 ‘泥橋’, ‘辰橋’, ‘長橋’로 나타난다. 그 중 ‘진다리(泥橋)’는 냇물 속에 진흙더미를 쌓아 만든 징검다리인 ‘진흙다리’의 훈차 표기로 보이고, ‘진다리(辰橋)’도 ‘진(흙)다리’의 ‘진’을 ‘辰’으로 음차 표기한 지명으로 보이며, ‘진다리(長橋)’는 ‘진흙다리’의 ‘진’이 역구개음화 현상으로 ‘긴’으로 변한 것을 ‘長’으로 훈차 표기한 지명으로 보인다.

복제(卜梯)는 과역면과 점암면(占巖面)을 경계 짓는 폭이 좁은 사정천에 놓인 징검다리일 가능성이 높고, 징검다리는 『훈몽자회』에는 ‘點石’이라 했기 때문에 ‘卜’은 냇물에 놓은 ‘點石’의 ‘點’의 음 ‘점’의 훈차 표기로 보인다.

[주제어] 卜梯, 占巖, 진다리, 泥橋, 辰橋, 長橋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결론 |
| II. 복제(卜梯)의 어원 |         |

## I. 서론

인류가 말소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시작할 때 처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사는 주변의 인명, 동식물명, 지명이었을 것이니 지명은 그 연원이 매우 깊다. 우리 지명은 한글 창제 이전에는 우리말을 기록할 고유 문자가 없었기에 부득이 한자로 음차, 훈차 표기했다. 때문에 옛 지명의 어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자의

\* 전, 동강대학교 교수 / whrkdqhd@hanmail.net

자의(字義)에 따라 해석하면 바른 해독에서 멀어질 수 있다. 본고는 고흥지역의 옛 지명 복제(卜梯)를 차차 원리와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그 어원을 밝히려 한다. 본고에서 출전을 밝히지 않은 지명은 『한국지명총람』의 자료이며,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은 『승람』으로 약칭했다.

## II. 복제(卜梯)의 어원

- ① 복제원(卜梯院) 현의 북쪽 30리에 있다. <『승람』 전라도 흥양현 역원>
- ② 卜梯院今廢. <『여지도서』 전라도 흥양현 역원>
- ③ 卜橋, 在縣東三十里. <『여지도서』 흥양현 교량>
- ④ 복제교(卜梯橋) 【다리】 → 집다리.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 ⑤ 집다리 【다리】 원등 남쪽 다리. 용구배(짐 실은 배)가 왔었음. <상동>

①의 복제원(卜梯院)은 성종 12년(1481)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흥양현 역원조에 기록되었으니 상당히 오래 전의 지명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757년~1765년경에 편찬된 ②의 『여지도서』 역원조에는 폐원되었다 했고, ③의 같은 책 교량조에는 현의 동쪽 30리에 ‘卜橋’가 있다 했다. 그러나 『한국지명총람』에는 복제원(卜梯院)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④의 복제교(卜梯橋)와 그 속지명 ⑤의 ‘집다리’를 볼 수 있다. 흥양현은 고흥군의 옛 이름이다.

### 1. 집다리

그러면 복제원(卜梯院)은 어떤 연유로 불린 지명일까? <훈몽자회>(예산본)에 ‘卜’은 훈이 ‘점’(中, 2)이라 했고, ‘梯’는 훈이 ‘드리’(中, 4)라 했다. 그런데도 현재 복제교(卜梯橋)의 속지명은 ‘점다리’가 아닌 ‘집다리’로 불린다.

그러면 복제교(卜梯橋)의 속지명은 어떤 연유로 ‘집다리’로 불렸을까? 장삼식 편 『대한한사전(大漢韓辭典)』(1964: 209)에서 ‘卜’의 훈을 찾아보면

- ㉠ 점복(問龜), ㉡ 점칠복(占之), ㉢ 줄복(賜輿), ㉣ 가릴복(選也),
- ㉤ 기대할복(期也) 이외에 ㉦ [國字]짐바리복(擔也)<sup>1)</sup>

이라 했다. ‘卜’의 대표 훈과 음은 ‘점복’ 또는 ‘점칠복’이다. 위 ㉦의 ‘짐바리복(擔也)’은 국자(國字)로서 우리

1) ‘擔’의 훈은 <훈몽자회>(예산본)에 ‘멜담’(下, 10)이라 했다.

나라에서만 쓰이는 훈이다. 이를 보면 복제교(卜梯橋)의 고유어 이름 ‘짐다리’는 ㉠ [國字]짐바리복(擔也)에 따라 불린 속지명임을 알 수 있다.

위 ㉠의 ‘짐바리’은 ‘짐’과 ‘바리’의 합성어다.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1992)에서 그 풀이를 보이면

“짐1[이] : 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꾸리거나 한 물건, ② 책임이나 부담.  
 ③ 한 사람이 한 번 져 나를 수 있는 분량의 단위,  
 ④ 전날의 세금 계산에 쓰이던 토지 넓이의 단위. 500 주척 평방.  
 곧 20㎡쯤. 열 뭇, 곧 백 줍이 한 짐이 된다.”  
 “바리1[이]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  
 “짐바리[이] 마소 따위로 실어 나르는 짐. [한卜駄, 짐태”

이라 했다. 이를 보면 ‘짐’이나 ‘바리’는 ‘옮기기 위한 물건’의 뜻하는 어사임을 알 수 있지만, 특히 ‘짐’은 국가에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쓰이는 토지 넓이의 단위”로 “20㎡쯤” 또는 “열 뭇, 곧 백 줍이 한 짐”을 뜻하는 어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朝鮮地誌資料』(강원도편)에도

“五十卜谷 畝 짐골”(원주군 귀래면)  
 “五十卜坪 畝 짐버덩”(인제군 북면)

이라 하여 ‘짐’이 ‘卜’으로 훈차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유년시절을 상기해 보면 가을에 벼를 베어 말린 후 벼를 묶을 때 10뭇(묶음)을 한 낱가리로 만들고 한 낱가리(10뭇)씩 지계에 엮어 날랐는데 이를 한 짐이라 했다. 따라서 ‘畝 짐골’, ‘畝 짐버덩’의 ‘畝 짐’은 50뭇을 져 나를 수 있는 벼단의 양을 뜻하므로 ‘畝 짐골’은 50짐 즉 500뭇(묶음) 만큼이 나오는 농토가 있는 곳이고 ‘畝 짐버덩’은 50짐이 나올 수 있는 농토와 같이 넓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인터넷 다음백과사전(<https://100.daum.net/>, 2021. 3. 10. 접속)을 검색해 보면 ‘卜’은

“짐을 싣는다는 뜻이기도 하며, 벼짐의 단위이기도 하다.”라 했고, 또 “전지(田地)의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 부(負)라고도 함. 양전척(量田尺)에 의한 1척 평방(平方)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복(卜) 또는 1부(負)라고 함.”

이라 했다. 여기에서도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양주동(1996: 755)은 우리나라에서 ‘卜’의 훈을 ‘짐’이라 한 연유에 대해

2) 버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이란 의미다.

“卜은 負의 생문(省文)으로 훈차 ‘디’이며 이문(吏文)에 ‘卜役·卜定’ 등 ‘디·딘’으로 읽히는데 이는 대개 負의 약체(略體)이기 때문이다. 明律엔 負로 正書하였다. 卜定 지정.〈『儒壻必知』〉, 卜役 단역.〈『吏讀便覽』〉”

“負는 훈이 ‘지’인데 그 연용형(連用形)은 ‘진’, 명사형은 ‘짐’이며 근세까지 곡물조세의 한 단위로 사용되었다. 文籍記寫엔 역시 卜으로 略書하였고 기타 卜軍(짐순), 卜馱(짐턱) 등 근자에까지 사용되었다.”

이라 하였다. 이돈주(1979: 271)도 ‘負’에 대하여

“負 「恃也, 从人守貝, 有所貝也. 一曰: 受貨不償。」

사람(人)이 재화(貝)를 지켜 쓰므로 (살기가) 믿음직하다(恃)는 말인데, 혹은 빚을 지다(受貨不償)의 뜻으로 쓰인다 하였다. 인하여 ‘짐을 지다’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라 하였다.

현재 고흥군에서 복제교(卜梯橋) 즉 ‘짐다리’는 어디에 위치할까? 현지 촌로에게 ‘짐다리’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과역중학교에서 약간 남쪽인 사정천 위에 놓인 다리를 지목한다. 이를 인터넷 카카오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과역중학교 바로 남쪽에서 과역리 물과 점암면에서 흐르는 사정천이 합수하기 직전에 ‘진교교’가 적혀 있고, 이곳 동편에는 ‘진교’란 촌명도 적혀있다. 2010년 새한지도사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1:50,000 『최신지도대사전』에는 ‘진다리’라 했다. 이로 보아 ‘진교’, ‘진다리’가 ‘짐다리’임을 알 수 있다.

## 2. 진다리-진교

‘진다리’와 ‘진교’를 비교하면 ‘다리’와 ‘교(橋)’는 동일 의미다. 그러면 ‘진’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진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진교(眞橋), 진교(陳橋), 진교(辰橋)를 볼 수 있다.

- ① 진교(眞橋) 【마을】 → 쇠향골.〈전북 정읍시 감곡면 진흥리〉
- ② 진교(陳橋) 【마을】 → 묵으흘.〈전북 김제군-김제읍-신곡리〉
- ③ 진교면(辰橋面) 【면】 본래 하동군의 지역으로 하동 읍내 동쪽에 되므로 동면 이라 하였는데,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고흥면의 안심동과 곤양군 금양면의 진교동 일부를 병합하여 6개 동리로 개편 관할하였는데 진교리가 갑자기 변창해짐에 따라 1918년에 진교리의 이름을 따라 진교면으로 고침.〈경남 하동군〉
- ④ 진교리(辰橋里)민다리 【리】 본래 곤양군 금양면 지역으로 민다리, 진교가 있으므로 민다리 또는 진교라 하였는데, 1914년 진교리라 해서 하동군 동면에 편입됨.〈경남 하동군 진교면〉
- ⑤ 진교1(辰橋) 【마을】 → 진교리.〈상동〉
- ⑥ 민다리1 【마을】 → 진교리.〈상동〉

⑦ 진교2(辰橋) 【다리】 → 민다리2.〈상동〉

⑧ 민다리2 [고룡교, 진교] 【다리】 진교와 고룡의 경계에 있는 다리. 이명산 꼭대기 못에 있던 용이 이 다리 아래에 옮겨 살았다 함.〈상동〉

①의 진교(眞橋)와 ②의 진교(陳橋)는 그 유래가 없다. 반면 ③~⑧의 진교(辰橋)는 그 유래를 ④에서 “민다리(진교)가 있으므로 불렀다.” 했다.

그렇다면 ‘민다리’는 어떤 연유로 불린 지명일까? 인터넷 다음검색창에서 ‘민다리’를 검색하면 디지털하동 문화대전「구비전승 분야」(<http://hadong.grandculture.net/>, 2020. 3. 11. 접속)에서 〈진교 민다리 놓은 이야기〉란 설화를 볼 수 있다.<sup>3)</sup>

“진교면 하평에 민다리가 있다. 이 민다리는 미르다리가 변음되어 불리게 된 이름이다. 민다리가 있는 곳에서는 이명산에서 쫓겨난 용이 숨었다고 하여 동네 사람들이 다리를 놓았으나 비만 오면 매년 떠나려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리를 놓기가 겁이 났고 또 싫증이 났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를 딱하게 여긴 도승 일곱 명이 금오산에서 부부 바위 두 개를 밀고 와서 다리를 놓았다고 하여 민다리라고 하였다. 이 부부 바위는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떠나려가지 않았다.”

“진교면 월운리 뒷산이 이명산인데 옛날에는 이명산이라고 불렀다. 이 산 정상에 못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이 못을 용지라 불렀다. 용지에 살고 있는 이무기의 심술로 경주 사람들이 눈병으로 시달림을 받자 돌을 불에 달구어 용지에 넣으니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기 위해 하늘로 사다리를 놓았으나 하늘로 오르지 못하였다. 이무기가 하늘로 사다리를 놓았던 곳이라 하여 미르다리라 하였으나 후에 민다리라고 하였다. 현재 ‘진교’라는 이름도 한자로 의역하면 진(辰)은 십이지 중의 미르(용)에서, ‘다리’는 ‘橋’를 따서 ‘진교(辰橋)’라고 하였다.”

위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설화다. 설화 속에는 말하려는 속셈이 숨겨져 있다. ‘민다리~辰橋’ 전설은 옛 사람들이 통행의 편의를 위해서 냇물에 큰 돌을 옮겨 놓은 징검다리였을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큰 돌을 냇물 속에 옮겨다 놓은 사실이 불가사의하게 여겨져<sup>4)</sup> 여덟 도승이 밀어다 놓은 다리로 각색하여 ‘민다리’ 설화를 만들었다 여긴다.

### 3. 민다리, 미르다리

인터넷 다음(<http://cafe.daum.net/>)을 검색하면 또 다른 ‘민다리’를 볼 수 있다. 즉 복제주군 구좌읍 종달리<sup>5)</sup> 산 15번지의 ‘민다리오름’, ‘민드리오름’, ‘은드리오름’이 그것이다. 제주도 현지 ‘민다리오름’의 입구에

3) 이 설화는 하동문화원(2015: 233) 『하동의 전설』에도 실려 있다.

4) 선인들이 고인돌을 놓은 일을 상기하면 냇물 속에 놓은 돌도 이해가 된다.

5) 『한국지명총람』(제주도 복제주군 구좌읍)조에 “종달리(終達里)[종달] 【리】 본래 복제주군 구좌면(읍)의 지역으로서, 중처럼

세워진 관광안내판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이 오름은 표고가 179m이고 비고가 79m이다. 일찍부터 ‘민다리오름’으로 불리고 禿達岫민드리오름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민간에서 소리가 많이 바뀌어 ‘은드리오름’으로 불리게 되고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자 차용 표기를 隱月峯은월봉: 은드리오름으로 표기되기에 이르렀다.”

위에서 이 지명은 일찍부터 민다리오름으로 불렸고 독달악(禿達岳)민드리오름으로 표기되었는데 민간에서는 은월봉(銀月峯), 또는 은드리오름으로 불린다 했다.

독달악(禿達岳)은 『승람』 권38, 전라도 정의현(旌義縣) 산천조에 “禿達岳 현 동쪽 20리에 있다. 둘레가 25리이다.”이라 했다. ‘禿’의 훈은 장삼식 편 『대한한사전』(1965)에 ㉠ 모지라질독(無髮), ㉡ 대머리독(禿頭), ㉢ 민둥산독(禿山)이라 했고, ‘達’은 도수희(2003: 307)은 ≪삼국사기≫(지리지) 지명에서 어두에 ‘達乙省 高峰’, ‘達忽 高城’과 같이 ‘高’의 뜻으로, 어말에서는 ‘夫斯達 松山’, ‘功木達 熊岡山’, ‘烏斯含達 兔山’과 같이 ‘山’의 뜻으로 쓰였다 했다. 이로 보아 ‘독달악(禿達岳)’은 수목(樹木)이 없는 민둥산이었기에 ‘禿’의 훈 ‘민둥산’을 훈차 표기한 어사일 것이며, ‘達’은 산을 뜻하는 옛말을 표기한 어사임을 알 수 있다.<sup>6)</sup>

반면 『한국지명총람』(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조)에는 위의 관광안내판에 적힌 ‘민다리오름’, ‘민드리오름’, ‘은드리오름’과 달리 ‘윤드리오름’이라 했다.

윤드리오름(은월봉) 【산】 불레낭동산 남서쪽에 있는 산.

은월봉(銀月峯) 【산】 → 윤드리오름.

‘윤드리오름’은 국토정보맵<http://map.ngii.go.kr/ms/map/2020>. 7. 5. 접속)에는 ‘은월봉’이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연유를 ‘禿達岳’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앞의 ‘민드리오름’과 ‘민다리오름’의 ‘드리’와 ‘다리’는 ‘禿達岳’의 ‘達’의 음 ‘달’의 개음절 표기로 보인다. ‘드리’는 제주도 방언에 우리 옛말 모음 ‘·’(아래아)가 존재함에 따른 표기다. 현행지도에서 제주도 구좌읍 종달리 소재 윤드리오름(銀月峯) 주변의 지형을 살펴보면 이곳에는 냇물다운 냇물은 볼 수 없다. 그러기에 ‘드리’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 ‘橋’가 아닐 것이기에 ‘月’로 표기되었을 것이며, 은월(銀月)의 ‘銀’은 은하수(銀河水)의 ‘銀’에 이끌린 어사로, ‘윤드리오름’의 ‘윤’은 윤월(閏月)에 이끌린 어사로 보인다.

‘오름’은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에 ‘산봉우리’라 했다. 양승영(2001)은 『지질학사전』에서 지형적으로 단성화산(單性火山)의 한 유형으로 대부분 화산쇄설구(火山碎屑丘, pyroclastic done) 즉 분석구(噴石丘, cinder

생긴 산(자머봉) 밑이므로 종달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종달리라 하며, 1946년 북제주군에 편입됨.”이라 했다. 하지만 ‘민다리오름’이 종(鐘)처럼 생겼다는 것은 화산폭발로 화산재가 쌓여 이룬 산 모양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보아 종달리(終達里)의 ‘終’은 ‘鐘’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기가 아닐까 한다.

6) 그러기에 우리말의 ‘달다’, ‘달아매다’와 懸의 훈 ‘매달다’의 ‘달’은 ‘高’의 뜻으로 삼국시대의 지명어 ‘達’과 통하는 어사로 보인다.

cone)에 해당되며, 분석구는 폭발식 분화에 의해 방출된 화산쇄설물(부스러기)이 분화구를 중심으로 쌓여서 생긴 원추형의 작은 화산재이며, 주로 현무암 스킨리아(scoria)로 이루어졌는데 높이는 대개 50m 내외라 했다.<sup>7)</sup>

이를 보면 ‘禿達岳’은 화산재부스러기인 돌가루로 이루어진 봉우리이므로 초목이 자라지 않아 민둥산이 되었을 것이기에 붙인 이름일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민다리오름’의 ‘민다리’는 경남 하동의 ‘민다리(辰橋)’와는 그 유래가 다를 수 있다.

#### 4. 진다리-泥橋, 長橋, 落月

이제 다시 앞의 경남 하동군 진교면(辰橋面) ‘辰橋-민다리’로 돌아가 보자. 앞에서 ‘辰橋-민다리’는 냇물에 큰 돌을 옮겨 만든 다리라 했고, ‘미르다리’는 이무기가 사다리를 놓은 곳이라 했으나 이는 ‘진다리’가 ‘辰橋’로 음·훈차표기 되면서 ‘辰’이 12간지에서 용(龍)을 뜻하므로 용의 옛말 ‘미르’를 취하여 각색된 설화일 것이라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辰橋-민다리’ 설화의 핵심은 냇물에 큰 돌을 밀어다 놓은 ‘징검다리’라는 사실과 아울러 복제교(卜梯橋)가 인테넷 카카오지도에 ‘진교교’로 적힘과 『최신지도대사전』에 ‘진다리’로 적힘에 주목해야 한다.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1991)에서 ‘징검다리’의 풀이를 보면 “개울이나 물이 낀 곳에 돌덩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그것을 딛고 물을 건너다니게 된 다리.”라 했다. 이를 보면 징검다리는 ‘흙더미’를 놓거나 또는 ‘돌덩이’를 드문드문 놓은 다리임을 알 수 있고, ‘진다리’는 ‘진흙더미’를 놓아 만든 ‘진흙다리’의 준말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유년시절에 섬에 진흙을 넣거나 또는 가마니에 모래를 넣고 이를 냇물에 놓은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 다녔다.

『한국지명총람』에서 ‘진다리’를 찾아보면 총 32개를 볼 수 있다. 이 중 한자로 음·훈차 표기된 지명은 이교(泥橋) 6개, 장교(長橋) 2개, 진월(珍月)·낙월(落月)이 있다.

먼저 ‘진다리-이교(泥橋)’를 살펴보면

- ① 진다리(泥橋, 진더리) 【마을】 흙이 몹시 짙.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 ② 진다리(泥洞) 【마을】 흙이 매우 짙. <경북 상주군 화서면 신봉리>
- ③ 진다리1(泥橋) 【마을】 진다리 위에 있는 마을.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진다리2(泥橋) 【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땅이 매우 질다 함. <상동>
- ④ 진다리(泥橋) 【마을】 내에 긴 다리가 있음. <충북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 ⑤ 진다리(泥橋) 【마을】 마을 어귀에 있는 다리.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 ⑥ 진다리(泥南, 泥南洞) 【마을】 용석리 중심 마을. <경남 창령군 창령읍 용석리>

7) 스킨리아(scoria)는 다공질(多孔質)의 화산쇄설물(부스러기)로서 제주도 말로는 ‘송이’라 한다.

①의 진다리(泥橋)는 “흙이 매우 질다.” 했다. 하지만 현행지도에서 이곳의 지형을 살펴보면 압향천 발원지의 촌명이므로 폭이 좁은 냇물임이 확인된다. 이로 보아 이교(泥橋)는 냇물 속에 ‘진흙더미’를 쌓아 놓고 이를 딛고 물길을 건너면서 ‘진다리’로 불린 것을 혼차 표기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②의 진다리(泥洞)도 이소천의 발원지에 위치한 마을로 폭이 좁은 냇물에 진흙더미를 쌓아 만든 징검다리인 ‘진(흙)다리’에서 연유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③의 진다리1, 2(泥橋)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땅이 매우 질다” 했다. 하지만 마을 동쪽에서 금강으로 들어가는 아주 작은 냇물이 흐르므로 이 냇물 속에 ‘진흙더미’를 쌓아 놓은 ‘진흙다리’에서 연유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지명이다. ④의 진다리(泥橋)는 달천으로 유입되는 신월천에 놓인 다리에서 연유한 지명인 듯한데, 신월천은 폭이 약간 넓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시 먼 옛날에는 ‘진흙다리’를 놓았던 곳일 수 있으므로 ‘진흙다리’에 연유한 지명으로 여긴다.

⑤의 진다리(泥橋)도 작은 골짜기의 물이 내린천에 유입하기 직전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진흙다리’에서 연유한 듯 여겨지며, ⑥의 진다리(泥橋)는 달리 이남(泥南) 또는 이남동(泥南洞)으로 불리는 마을인데, 이곳은 진다리(泥橋) 마을과 학산(鶴山) 또는 이북(泥北)이라 불리는 마을 사이의 남창천에 놓인 다리에서 연유한 촌명인 듯하다. 그 까닭은 남창천이 창녕읍에서 발원하여 낙동강에 유입하는 물이지만 폭이 상당히 좁은 냇물이므로 옛날에 진흙뗏장을 드문드문 놓은 ‘진(흙)다리’에서 연유하여 ‘진다리’로 불린 것을 이교(泥橋)로 혼차 표기한 지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은 ‘진다리~장교(長橋)’를 살펴보자.

- ① 진다리들(長橋坪)【들】 연당 서북쪽에 긴 다리가 있었음.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 ② 진다리(長橋)【마을】 <월야면-정산리>
- ③ 진다리(長橋, 똑다리)【다리】 똑다리보의 돌다리. <월야면-용암리>
  - \* 똑다리보【보】 소보 북쪽에 있는 보. 똑다리(돌다리)가 있었음.
  - \* 소보【보】 은암 동쪽에 있는 보.
  - \* 은암(殷岩)【마을】 마감동 서북쪽 구석에 있는 마을.
  - \* 마감뫼신성【마을】 대실 남쪽에 있는 마을.
- ④ 장교(長橋)【마을】 돌로 만든 긴 다리가 있음. <전북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 ⑤ 진다리【다리】 외산 남쪽에 있는 긴 다리. <경남 밀양군 상남면 외산리>

①~③의 ‘진다리(長橋)’는 전남 함평군 월야면 지역으로 모두 인접지역이다. ①의 월야면 월악리 ‘진다리들(長橋坪)’은 정산리와 월악리를 경계 지으며 흐르는 월야천(고막천의 상류)의 동쪽들로 연당 마을의 서쪽 지역이다. 따라서 월야천의 수위가 낮아질 때 진흙뗏장을 놓아 만든 ‘진(흙)다리’가 역구개음화 현상으로 ‘진다리’로 불린 것을 ‘長橋’로 혼차 표기한 지명으로 여긴다.

②의 월야면 정산리 ‘진다리(長橋)’ 마을은 용암리에서 발원하여 용암방죽, 용강방죽, 용정방죽에 모이는 곳

에 위치한다. 함평군(1989: 959) 『마을유래지』에 의하면 “진다리(長橋) 마을은 1960년대 초 동촌 마을에서 자연부락이 분리되면서 돌로 된 긴 다리가 이 마을에 있었다 해서 장교(長橋)라 불렀다.”고 했다. 그러나 이 다리는 긴 다리는 될 수 없다. 이곳의 물줄기는 아주 작은 도랑물이다. 그러므로 애초에는 분명 ‘진흙뗏장’을 놓은 ‘진(흙)다리’였을 것인데 후에 돌다리(石橋)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본래 ‘진(흙)다리’였기에 불린 ‘진다리’가 역구개음화 현상으로 ‘긴다리’로 불리다가 ‘長橋’로 훈차 표기된 지명으로 여긴다. ③의 월야면 용암리 ‘진다리長橋’는 똑다리보에 놓인 달리 똑다리라 하였는데 이는 소보 북쪽에 있다 하였고 소보는 은암(殷岩) 동쪽이며 신성 북쪽이라 하였으니 똑(돌)다리 이전에는 용강저수지 아래로 흐르는 도랑에 놓인 ‘진(흙)다리’에서 연유한 지명으로 여긴다.

④의 전북 고창군 성내면의 ‘장교(長橋)’ 마을은 지금은 서쪽에 동림저수지가 조성된 곳이다. 하지만 『근세한국5만분의1지형도』을 보면 폭이 매우 좁은 고부천의 상류입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장교(長橋) 마을은 이곳에 놓인 ‘진(흙)다리’가 ‘긴다리’로 불리다가 ‘長橋’로 훈차 표기된 지명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진다리-낙월(落月)’은 영광군에 속한 낙월면(落月面)의 이름이다. 낙월도(落月島)가 문헌상 나타난 최초의 기록은 『승정원일기』 정조 20년(1796) 11월 30일조의 “靈光郡落月島”다. 『한국지명총람』에는 “진다리섬(落月島, 珍月島) 【섬】 <전남 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리>”이라 했다. ‘진다리섬’은 본래 상낙월도와 하낙월도란 두 섬이 낮은 돌길로 이어져 있다(필자는 1976년 방문). 그러므로 낙월도(落月島)는 긴 돌길이 다리 역할을 해주었기에 ‘긴 다리’라는 의미에서 불린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긴다리’는 이후 구개음화 현상으로 ‘진다리’로 변하면서 ‘진’은 동사 ‘지다’로 인식되어 ‘落月’로 훈차 표기된 지명으로 의심한다.<sup>8)</sup> 이칭 진월도(珍月島)는 ‘진’이 ‘珍’으로 음차 되고 ‘다리’는 ‘月’로 훈차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곳의 ‘진다리섬’은 ‘진흙다리’와는 무관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옛 문헌에 기록된 이교(泥橋)는 어떠할까? 『승람』에는 ①의 ‘泥梯浦’를 볼 수 있고, 『여지도서』에는 ②~④의 ‘泥橋’를 볼 수 있다.

- ① 泥梯浦, 縣東十五里. <전라도 무안현 산천>
- ② 泥橋里, 自官門西距三十里. <충청도 청주 방면 서강내일면>
- ③ 泥橋里, 自官門東距八十里. <강원도 회양 방면 사동면>
- ④ 泥橋, 在府南十里. <평안도 자산(慈山) 교량>

①의 이제포(泥梯浦)는 『승람』에서 전라도 무안현의 지명이라 했다. 하지만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학교면(鶴橋面)은 본래 무안군 좌촌면이었는데 1910년 목포부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함평군에 편입된 곳이라 했다.

함평군 마을유래지(1989: 257-258)에 “이제포(泥梯浦)에서 학포(鶴浦)로 바뀌었으며 근세에 다시 학포(鶴浦)가 토교포(土橋浦)로 바뀌었다. 토교(土橋)가 학교(鶴橋)가 되었다.”라 했다. <용비어천가> (제9장 주식)에

8) 1970년대에 낙월초등학교에서 3년간 근무했던 지인(박용국, 76세)에게 문의한 결과 필자와 같은 견해였다.

“泥峴 흙고개”, “泥城 흙성”이라 했다. 『훈몽자회』(예산본)에 ‘泥’의 훈은 ‘흙’이라 했고, ‘梯’는 훈이 ‘ㄸ리’라 했으니 이제(泥梯)는 ‘흙다리(土橋)’였음을 알 수 있다(조강봉, 2020: 504).

②의 『여지도서』 충청도 청주 서강내일면(西江內一面) 이교리(泥橋里)는 『호구총수』(1789년)에 기록된 지명이다.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63쪽)을 보면 청주군 강내면 연정리는 옛 청주군 서강내일하면 泥橋里 각 1부와 서강내이상면이 합해진 곳이라 했다. 그리고 1914년~1918년에 제작된 『근세한국 5만분의1지형도』 청주(도엽183)에는 강내면 관내에서 이교리(泥橋里)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지명총람』 충북 청원군 강내면 연정리에서는 이교리(泥橋里)는 볼 수 없다. 다만 인터넷 다음카카오지도를 보면 청주시의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와 접경지인 흥덕구 현암동 지역에서 이교리(泥橋里)와 ‘진다리’를 볼 수 있다.

이곳 진다리(泥橋)가 놓인 하천은 폭이 매우 좁은 곳이다. 그러므로 아주 먼 옛날에는 냇물에 ‘진흙뗏장’을 놓고 그것을 딛고 물길을 건넌 것으로 추정하며 그러기에 진다리(泥橋)는 이곳에 놓인 ‘진(흙)다리’가 이교(泥橋)로 혼차 표기된 지명일 것으로 추정한다.

③의 『여지도서』 강원도 회양군 사동면 이교리(泥橋里)는 『근세한국 5만분의1지형도』(말휘리, 도엽391)에서 살펴보면 백동(栢洞)과 장동(長洞) 마을의 바로 남쪽 지역이다. 『최근북한 5만분의1지형도』(錦剛, 도엽 NJ 52-5-24)에서 이교리(泥橋里)를 살펴보면 이곳은 북한강의 발원지 인근 백동과 장동 마을 바로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작은 냇물 셋이 합수함을 볼 수 있으나 이교리(泥橋里)란 표기는 없고 대신 ‘예리’라 적혀 있다. 하지만 이곳의 이교리(泥橋里)는 조그만 냇물에 흙무더기를 놓은 ‘진(흙)다리’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의 평안도 자산군 교량조의 이교(泥橋)는 면명이 없어 위치와 지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 5. 삽다리(薪橋), 삽다리(插橋), 흙다리(土橋)

‘진다리~泥橋’는 ‘진흙’과 ‘다리’가 합성된 지명이다. 옛날 폭이 좁은 냇물은 맨발로 건너다녔다. 하지만 타지로 여행할 때는 버선발이 젖지 않도록 냇물 속에 놓은 흙무더기인 징검다리인 진다리(泥橋)를 이용했다. 하지만 물이 약간 많은 냇물에는 큰 돌을 놓았을 것이며 물이 더 많고 깊은 냇물에는 삽다리·삽다리를 놓았을 것이다. 삽다리는 냇물 속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쉼(나뭇가지)을 얹은 다리인데 달리 신교(薪橋)라 부른다. 그것은 ‘薪’의 훈이 ‘삽’이기 때문이며 이는 다리의 상판을 만드는 재료인 쉼에 초점을 맞춘 지명이다. 반면 삽다리는 역시 냇물 속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쉼(나뭇가지)을 얹어 만든 다리다. 하지만 삽교(插橋)로 불리는 까닭은 ‘插’의 훈이 ‘꽃다’이기 때문이며 냇물에 말뚝을 꽂아 박은 데에 초점을 맞춘 지명이다. 토교(土橋) 역시 냇물 속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쉼(나뭇가지)을 얹어 만든 다리다. 하지만 쉼 위에 흙을 얹어 통행의 편리를 도모한 다리다. 토교(土橋)의 ‘土’는 훈이 15세기에는 ‘흙’이었다. 그러므로 학교(鶴橋)는 ‘흙’을 음차 표기한 지명이다.

이런 사실은 <<대동지지(大東地志)>> 충청도 덕산현 진도조에 “삽교(插橋)는 동쪽으로 15리인 선화천(宣化川) 큰길에 있는데, 고려 때는 신교천(薪橋川)이라 하였다.” 했고, 『대동지지』 경상도 김해도호부 교량조에 “삽교(插橋)는 신교천(薪橋川)에 있다.”고 했다. 또 『승람』 제19권 충청도 덕산현 산천조에 “신교천(薪橋

川)은 현 동쪽 17리에 있다 했고 사읍교천(沙邑橋川)은 현 동쪽 17리에 있다.”고 했다. 이를 보면 ‘沙邑橋’와 ‘插橋’는 같은 의미의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삽교(插橋)의 다른 이름으로 『조선지리지』의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所草面)의 ‘白橋 - 흙다리’를 볼 수 있다. 다리 이름에 ‘白’이 쓰인 까닭은 ‘白’의 훈이 ‘슌’이기 때문인데, 삽교(插橋)의 ‘插’의 음 ‘삽’이 ‘白’의 훈 ‘슌’과 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 『조선지리지』 강원도 횡성군 남내일작면(南內一作面)조에 ‘삼월현(插月峴)’이 있는데 속지명은 ‘슌다리고개’다. 따라서 ‘插月 - 슌다리’는 삽교(插橋)의 이표기임을 알 수 있다.

옛 다리는 진흙더미인 뗏장을 냇물 속에 띄엄띄엄 놓은 징검다리인 진다리(泥橋)에서 섯다리(薪橋), 삽다리(插橋), 흙다리(土橋)로 발전했다. 섯다리(薪橋), 삽다리(插橋), 흙다리(土橋)는 보다리 형식으로 하천 폭이 넓은 곳에 가설되며 다리 폭도 한 사람만 겨우 다니는 규모에서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고 또 마차나 수레도 다닐 수 있다. ‘보’는 칸과 칸 사이의 두 기둥을 건너지르는 나무다. 때문에 보다리는 들보가 기둥 위에 놓인 다리로 달리 형교(桁橋)라 하는데 이는 교대(橋臺)나 교각에 보를 건너질러서 꾸민 다리다. 이런 다리는 외나무다리와는 달리 교면이 넓으므로 판교(板橋)라 한다. 돌다리(石橋)는 보다리 형식과 무지개다리(虹橋) 형식으로 가설된다. 하지만 나무다리(木橋)나 흙다리(土橋)는 보다리 형식 밖에 없다(손영식, 1990: 8).<sup>9)</sup>

따라서 폭이 좁은 냇물에는 진흙무더기를 놓은 일종의 징검다리가 놓였을 것이며 폭이 넓은 냇물에는 섯다리(薪橋), 삽다리(插橋), 토교(土橋)가 놓였다가 점차 지금의 시멘트다리로 발전했을 것이다.

## 6. 징검다리

앞에서 ‘징검다리’는 개울이나 물이 권 곳에 돌덩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그것을 밟고 물을 건너다니게 된 다리라 했다. 이를 보면 징검다리는 ‘흙더미’를 놓고 이를 밟고 건너는 ‘진다리(泥橋)도 있지만 ‘돌덩이’를 드문드문 놓고 건너는 ‘돌다리(石橋)도 있다.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옛글)에서 ‘징검다리’의 풀이를 보면

징검다리[음(남)<옛>] ⇒ 덩검다리. 예) 跳過橋 징검다리<동해상: 41>

腳踏石 징검다리<한청 9: 24>

징검돌이[이]<옛> ⇒ 덩검다리. 예) 倚石 징검돌이<物譜 - 주거>

이라 하여 ‘징검다리’의 이전 표기는 ‘덩검다리’였고, 한자 지명으로는 도과교(跳過橋)(뛰어 건너는 다리) 또는 각답석(腳踏石)(밟고 건너는 돌)이라 했다.

유창균 『이조어사전』에서도

9) 이밖에 배(舟)를 여럿을 이어붙인 후 그 위에 널판자를 올려 만든 배다리(舟橋) 또는 부교(浮橋)가 있고, 다리 위에 누각(樓閣)이 있는 누교(樓橋)와 절벽과 절벽 사이에 줄을 매달아 만든 매단다리(棧橋) 일명 현수교(懸垂橋)가 있다.

징검돌이[명] 징검다리. \* 징검돌이(倚石)〈物譜 - 舟車〉  
\* 징검돌이(跳過橋)〈同文上: 41〉, 〈한청 264a〉

이라 했으니, ‘징검다리’는 의석(倚石), 도과교(跳過橋)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징검다리’의 옛말 ‘딩검드리’는 ‘딩그+어+ㅁ+드리’딩검+돌+이’로 분석되며 ‘딩검드리·딩검돌이’징검다리’의 변화일 것이다.

또 『훈몽자회』에는 “**ㄹ** 드리강 點石渡水者 亦作杠. 倚 드리리 列石爲渡”라 했다. 즉 ㄹ는 ‘드리’인데 그것은 ‘점점이 놓인 돌’(點石)을 딛고 물을 건너는 것이라 했고, 倚도 ‘드리’인데 (넷물을 건너기 위해) ‘늘어놓은 돌’(列石)이라 했다.

또 장삼식 편 『大漢韓辭典』에서 ㄹ, 倚, 杠, 衍의 자석을 보면

ㄹ : 돌다리 강, 징검다리 강, 聚石渡水.  
倚 : 징검다리 기, 聚石水中爲橋.  
杠 : 외나무다리 강, 갯대 강.  
衍 : 외나무다리 작(橫木橋), 衍橋 : 외나무다리

이라 했으니 여기서도 강(ㄹ)은 돌다리, 징검다리로 ‘물을 건너기 위해 모아 놓은 돌’이라 했으며, 기(倚)는 ‘물속에 돌을 모아 놓아 만든 다리’를 뜻하며, 강(杠)과 작(衍)은 외나무다리라 했다.

옛 운서인 『광운(廣韻)』, 『집운(集韻)』, 『전운옥편(全韻玉篇)』에도

ㄹ : 石杠石橋也, 爾雅曰石杠謂之倚字俗從石.(광운)  
ㄹ : 聚石水中爲步度,<sup>10)</sup> 衍通作杠.(집운)  
杠 : 小橋.(전운옥편)

이라 하였다. 즉 『광운』에 ㄹ은 석강(石杠) 또는 석교(石橋)인데, 爾雅에서 말하길 석강(石杠)은 기(倚)라 하는데, 속설에 (넷물 속에 늘어놓은)돌(石)에 따른 글자라 했다. 『집운』에도 ㄹ은 넷물을 건너기 위해 물속에 모아 놓은 돌이라 했고, 『전운옥편』에 杠은 작은다리(小橋)라 했다.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에서 ‘징검-’이 쓰인 어사를 찾아보면 ‘징검징검’과 ‘징검바늘’을 볼 수 있다.

징검징검[에] ① 퍽업퍽업 징거서 꺾매는 꼴.  
② 발을 멀쩡멀쩡 띄어 놓으며 걷는 꼴.  
징검바늘[에] ① 옷을 징그는, 대가리가 구슬로 된 바늘.

10) 옛글에 度는 渡의 의미로 자주 쓰였음.

위에서 ‘징검징검’은 ‘띠엄띠엄 징거서 꿰매는 꼴’, ‘발을 멀쩡멀쩡 띄어 놓으며 걷는 꼴’이라 했고, ‘징검바늘’은 옷을 징그는 바늘이라 했다.

『우리말큰사전』에서 ‘징검’과 형태와 의미가 비슷한 어사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징그다’, ‘징그기’, ‘징거감기’, ‘징거두다’를 볼 수 있다.

징그대웁(남)(으벗) : 옷이 헤어지지 않게 등성등성 꿰매다.

징그기(이) : 터지기 쉬운 곳을 징그는 일.

징거감기(이) → 징그기

징거두대웁(남) ① 옷이 헤어지지 못하게 하느라고 등성등성 꿰매어두다.

위에서 ‘징그다’는 “등성등성 꿰매다.”라 했고, ‘징그기’는 “터지기 쉬운 곳을 징그는 일”로 풀이하며 ‘징거감기’와 같은 말이라 했다. 이로 보아 ‘징그기’는 ‘징그+기’로 분석되고, ‘징거감기’와 ‘징거두다’는 ‘징그+어’ 징거’에 ‘감기’와 ‘두다’가 붙은 어사로 보인다. 그리고 ‘징그-’나 ‘징거-’는 ‘징그는 일’이라 했으니 ‘징거감기’, ‘징거두다’는 두 천 조각을 꿰매서 하나로 합한 후 바느질을 촘촘하게 깎는 것이 아니라 ‘띠엄띠엄’ 또는 ‘등성등성’ 깎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기에 ‘징검다리’는 ‘징거+ㅁ>징검’에 ‘다리’가 붙은 어사로 진흙이나 돌을 드문드문 놓은 다리임을 알 수 있다.

## 7. 점암(占巖), 점석(點石), 복제(卜梯)

『한국지명총람』(고흥군 점암면조)에 점암면(占巖面)은 “바위가 드문드문 서 있기에 불렀다.”했다. 이를 보면 점암면(占巖面)은 바위가 드문드문 분포한 고인돌에 연유한 지명으로 볼 수 있다. 고인돌은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고 다음이 전북이다. 고흥에는 183개군 2,460여기의 고인돌이 분포한다(순천대학교박물관, 2003: 426). 고흥은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북 고창과 전남 화순보다도 더 많다. 하지만 복제원(卜梯院)은 『승람』에 기록된 오래된 지명이고 점암(占巖)은 『호구총수』(10789)와 『대동지지』(1861~1866년경)에 나오는 비교적 후대의 지명이니 고인돌에서 연유한 지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복제교(卜梯橋)는 과역면과 점암면(占巖面)을 경계 짓는 사정천 위에 놓인 다리다. 필자는 복제교(卜梯橋)가 놓인 사정천을 찾아가 보았다. 현재 사정천 위에는 시멘트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리 큰 다리는 아니다. 필자의 고향 마을 앞에는 대마천(와탄천 지류)이 흐르는데 아사리보라 부르는 보를 통해서 물길을 건너기도 하고 보의 500m 아래에서는 맨발로 건너다녔는데 비가 내린 후 수위가 낮아지면 작은 돌이나 진흙더미를 놓은 징검다리로 건너 다녔다. 하지만 대마천과 대산천이 합수되는 1.5km쯤 하류인 고창군 대산면 갈마리 갈마 마을 앞에는 두 냇물이 합수되어 흐르므로 수량이 약간 많기에 매우 큰 돌이 놓인 징검다리로 건너다녔다. 이곳 복제교(卜梯橋)가 놓인 사정천은 필자의 마을 앞으로 흐르는 대마천보다 폭이 좁은 냇물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옛날 사정천에도 큰 돌을 놓은 징검다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에서 복제(卜梯)의 ‘卜’은 훈이 ‘점(中, 2), ‘梯’는 ‘드리(中, 4)라 했고, 징검다리는 강(硿), 기(倚)라 했다. 『광운(廣韻)』에 ‘硿’은 ‘石硿’, ‘石橋’라 했고, 『집운(集韻)』에는 ‘聚石’이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어린이들이 배우는 한자 학습서인 『훈몽자회』에서는 징검다리를 ‘點石’이라 했다. 그러므로 ‘點石’은 우리나라에서 징검다리를 이해하는 매우 주목되는 어휘가 아닐 수 없다.

복제교(卜梯橋)는 과역면과 점암면을 경계 짓는 사정천 위에 놓인 다리다. 복제(卜梯)가 놓인 곳은 비교적 넓지 않은 냇물이다. 그러므로 아주 먼 옛날에는 큰 돌을 點點이(드문드문) 놓은 징검다리였을 것이기에 복제(卜梯)는 ‘點드리’ 또는 ‘點石’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복제(卜梯)는 ‘點드리’, ‘點石’에 쓰인 ‘點’의 음 ‘점’에 이끌려 ‘점’의 훈을 가진 ‘卜’으로 훈차 표기한 지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의 또 다른 근거는 점암(占巖)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점암(占巖)은 “바위가 드문드문 서 있기에 불렀다.” 했다. 하지만 장삼식 편 『大漢韓辭典』에 점암(占巖)의 ‘占’은 훈이 ‘점유하다’, ‘점치다’이라 했고, ‘點’은 『우리말큰사전』에서 “사람의 살갓 또는 짐승의 털 위에 생겨난 얼룩”이라 했다. 이를 보면 ‘占巖’은 과역면과 점암면의 경계 지역으로 흐르는 사정천에 놓인 징검돌인 ‘點石’ 또는 ‘點巖’의 ‘點’이 복제(卜梯)의 영향으로 ‘卜’과 훈이 같은 ‘占’으로 훈차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Ⅲ. 결 론

본고는 복제(卜梯)의 어원을 살핀 논의다. 복제원(卜梯院)은 『승람』 전라도 흥양현조에 기록된 지명인데 『여지도서』에 폐원되었다 했으나 『한국지명총람』에 복제교(卜梯橋)로 남아있으며 속지명은 ‘짐다리’라 했으나 현행지도에는 ‘진교’ 또는 ‘진다리’라 했다.

‘진다리’의 음훈차 표기는 ‘辰橋’, ‘長橋’, ‘泥橋’로 나타난다. ‘진다리(辰橋)’는 경남 하동군 진교면의 지명으로 도승이 하루 밤 사이에 큰 돌을 밀어다 놓았다 하여 ‘미르다리’, ‘민다리’로 불렸다는 설화가 있다. 하지만 ‘辰橋’는 먼 옛날 냇물에 진흙더미를 쌓아 만든 징검다리인 ‘진(흙)다리’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후 큰 돌을 놓은 돌다리(石橋)로 바뀐 후 ‘진’을 ‘辰’으로 음차 표기하여 미화했다 여겨진다. 또한 ‘진다리(泥橋)’와 ‘진다리(長橋)’도 폭이 좁은 냇물이 흐르는 곳에 놓인 다리임이 확인되므로 ‘진다리(泥橋)’는 얇은 냇물에 진흙뗏목을 놓아 만든 ‘진(흙)다리’를 ‘泥橋’로 훈차 표기한 지명으로 보이며, ‘진다리(長橋)’는 ‘진(흙)다리’의 ‘진’이 역구개음화되어 ‘긴’로 변한 것을 ‘長’으로 훈차 표기한 지명이라 여긴다.

복제(卜梯)는 과역면과 점암면(占巖面)을 경계 짓는 폭이 좁은 사정천에 놓인 징검다리다. 징검다리는 『훈몽자회』에 ‘點石’이라 했다. 따라서 복제(卜梯)는 먼 옛날 사정천에 놓인 징검돌인 ‘點石’에 연유한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卜’은 ‘點다리’, ‘點石’, ‘點巖’의 ‘點’의 음 ‘점’의 훈차 표기로 여기며, ‘梯’는 ‘다리’의 훈차 표기로 여긴다.

〈참고문헌〉

- 강신항, 『奎章全韻, 全韻玉篇』, 박이정, 199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 20, 『輿地圖書』 下, 탐구당, 1973.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V, 민족문화추진회, 1971.  
 월지유철,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태학사(1985년 번각발행본).  
 유창돈,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1971.  
 장삼식, 『大漢韓辭典』, 省文社, 196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1980.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옛글과 이두), 한글학회, 1992.  
 디지털하동문화대전(<http://hadong.grandculture.net>)  
 廣韻：中華書局據遵黎氏古逸叢書覆宋重修本景印  
 集韻：中華書局據東亭五種本校刊, 中華書局聚珍倣宋板印
- 도수희, 『한국의 지명』, 아카넷, 2003.  
 도수희, 『한국 지명 신 연구』, 제이엔씨, 2010.  
 손영식, 『옛다리(빛깔이 있는 책들 18)』, 대원사, 2003.  
 순천대학교박물관, 『고흥군문화유적분포지도』, 고흥군·순천대학, 2003.  
 양주동, 『增訂 古歌研究』, 일조각(重版), 1996.  
 이돈주, 『한자학총론』, 박영사, 1979.  
 조강봉, 『호남문화연구』 25,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97.  
 조강봉, 『한국 지명의 어원 연구』, 태학사, 2020.  
 하동문화원, 『하동의 전설』, 하동문화원, 2015.

\* 이 논문은 2021년 2월 26일에 투고되어,  
 2021년 3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Ancient Place Name of 'Bokje(卜梯)'

Cho, Kang-bong\*

This study is designed to consider the origin of Bokje(卜梯). Bokjwon(卜梯院) is the place name in a county of Heungyang-hyeon(興陽縣), Jeolla-do(全羅道) recorded in the Geography 'Donggukyeojiseungnam(東國輿地勝覽)'. In Han-gukjimyeongchongnam(韓國地名總覽), Bokjegyo(卜梯橋) is being recorded in Chinese letter, which means Jimdari(집다리) in Korean. In Kakao Map Jin-gyo(진교) or Jindari(진다리) is shown.

Jindari(진다리) has another name of Nigyo(泥橋), Jin-gyo(辰橋) and Jang-gyo(長橋). In ancient times, lumps of clay(진흙) was used as a bridge to cross the wide brook. As is Jindari(진다리) combines clay and bridge, so is Ni(진흙) plus Gyo(橋) in Nigyo(泥橋). In the case of Jin-gyo(辰橋), clay is written as Jin(진흙) of Korean pronunciation. Janggyo(長橋) is the place name of reversely palatalized Jin[泥] as Gin[長].

Bokje(卜梯) is a bridge over Sajeongcheon(沙亭川) between Gwayeok-myeon(過驛面) and Jeomam-myeon(占巖面). Sajeongcheon(沙亭川) is considerably broad one. So in ancient times, some stepping stones were used to be sparsely placed to cross it. In the Joseon Dynasty of Hunmongjahoe(訓蒙字會), Chinese letter study book, stepping stones are expresses as Jeomseok(點石), which means sparsely placed stepping-stone bridge. Accordingly, under the influence of Bok(卜) in Bokje(卜梯), Jeom-am(點巖) is changed as Jeomam(占巖) meaning fortune telling stones.

Given this, it is reasonably assumed that 'Bok'(卜) of 'Bokje'(卜梯) is derived from adopting the meaning of 'jeom' which is pronunciation of 'Jeom'(點) letter of 'Jeomseok'(點石) that means the stepping-stone across the stream.

**[Keywords]** Bokje, Jeom-am, Jindari, Nigyo, Jin-gyo, Jang-gyo

---

\* Former Professor of DongKang University